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0월 20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환경기후정책과	담 당 자	• 탄소중립전략팀장 • 담당자	손여순 ☎440-8591 김지연 ☎440-859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제9회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25일 송도서 개최
- 기후위기, 탄소경제 새로운 대전환 등 논의의 장 열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는 기후금융과 기후정책, 기후기술·산업의 글로벌 현황과 이슈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2014년부터 개최했다.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프랑스) GCF 사무총장과 칼리드 압델라흐만(H.E Khaled Abdel Rahman, 이집트) 주한 이집트대사가 참여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위기의 리스크와 기회’라는 주제로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기후위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원탁토론 ▲기후금융의 혁신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후기술과 자원 연계 ▲건물

과 탄소중립도시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인천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될 예정이다.

김세헌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위치한 우리 인천은 글로벌 기후중심도시로서, 지난 7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협력연락사무소 송도 개소와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새로운 탄소경제 패러다임의 핵심인 기후금융과 기후산업이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세계도시 인천으로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진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나아가 시는 올해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중·장기적 비전 선포,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조기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인천시 홈페이지(incheon.go.kr) 또는 컨퍼런스 사전등록 홈페이지(climate-ii.mliv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제9회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포스터

LIVE ▶ climate-ii.mlive.kr

● 온라인 생중계 진행 ●



Register Now!



제9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imate Finance & Industry

October 25th 2022 (Tues.) 10:00 ~ 16:30
Songdo Convensia, Incheon
— 송도컨벤시아 3층 회의실 —

Theme 기후위기의 리스크와 기회
Risk and Opportunities of the Climate Crisis

컨퍼런스 만족도 조사에 응답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Take our survey & win giveaway!

등록 | 컨퍼런스 웹사이트 climate-ii.mlive.kr 문의 | 032-715-5796 cmk1122@ii.re.kr



주최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연구원 Incheon Research Institute 주관 IC&E 인천기후환경연구소 Incheon Institute for Climate & Environment 후원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